

2015. 3. 17.

단독판사회의 관련 보고

■ 2015년 상반기 단독판사회의

- 3. 16. 16:00 동관 4층 중회의실에서 개최
- 의장으로 최선임자인 장○ 판사 선출

■ 경과

- 전 의장인 김○○ 판사는 경선을 유도
 - 김○○ 판사는 최선임자 6인(29기 3인, 30기 연장자 3인)에 대하여 입후보를 독려 하였으나, 모두 거절

성명	생년월일	전입일자	기수
장○(張○)	(이하 열 생략)	(이하 열 생략)	29
이○○(李○○)			29
이○○(李○○)			29
정○○(鄭○○)			30
박○○(朴○○)			30
차○○(車○○)			30

- 입후보자 추천 결과 ⇨ 장○, 이○○, 정○○ 판사 추천됨
 - 장○ 판사가 선출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여 장○ 판사 추천 추진하였고, 장○ 판사가 사퇴할 경우를 대비하여 정○○ 판사도 추천 추진하였음
 - 김○○ 측은 제3의 후보들에게 입후보 의사를 타진 ⇨ 별다른 성과 없자 이○○ 판사를 추천한 것으로 보임

■ 결과

- 추천된 후보자 모두 사퇴 의사를 밝혔으나, 주변의 설득, 최선임자로서의 책임감 등으로 가장 선임자인 장○ 판사가 결국 단독후보로 남게 됨
- 회의일 찬반 투표 실시 ⇨ 참석자 만장일치로 장○ 판사 당선

■ 전망

- 김○○ 판사는 경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결국 관례대로 최

선임자가 의장이 되었음. 또한 투표 결과 만장일치 찬성이어서 관례대로 박수에 의해 추대하는 형식과 실질적으로 다를 바 없는 결과 ⇨ 김○○ 판사의 의도가 전혀 반영되지 않음. 지지기반 상실

- 2014년에는 단독판사회의 집행부가 매월 모여 '임원회의'를 개최하였고, 단독판사회의 내 '사무분담 연구모임'을 결성하여 운영 ⇨ 2015년에는 이와 같은 활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임